

# 2020 국별 진출전략

## 스웨덴



<b>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b> .....	<b>3</b>
1. 개요 .....	3
가. 시장 전망 .....	3
나. 주요 경제지표 .....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
가. 유로존 경기부진 장기화 .....	4
나.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변화 .....	4
다. 난민유입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 .....	4
라. 글로벌 대기기업의 원가절감 노력 배가 .....	5
<b>II. 비즈니스 환경 분석</b> .....	<b>6</b>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6
가. 정치 환경 .....	6
나. 경제 환경 .....	6
다. 산업 환경 .....	7
라. 정책·규제 환경 .....	8
2. 시장 분석 .....	10
가. 시장 특성 .....	10
나. 교역 .....	10
다. 투자 .....	11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	14
가. 교역 .....	14
나. 투자 .....	15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16
<b>III. 진출전략</b> .....	<b>17</b>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17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18
3. 한-스웨덴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24
4. 진출 시 유의사항 .....	29
<b>첨 부</b>	
1. 수출유망품목(상품) .....	30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32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	33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34
<b>부 록</b>	
對스웨덴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	35



#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1 개요

### 가. 시장 전망

#### 2020년 스웨덴 GDP 성장률은 1.6% 내외 전망

-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및 스웨덴 코로나화 하락으로 2020년 스웨덴 GDP는 2019년과 동일한 1.6% 전망
  - 민간소비와 공공소비가 각각 1.5%, 1.4%씩 증가할 전망이다이나 고정투자는 2019년 대비 2.4%p 증가한 2.1% 예상
  -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확대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스웨덴 기업과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높은 Volvo, Ericsson, Atlas Copco사 등 제조업체 매출 감소
  - 미-EU, 미-중 통상마찰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 저금리 정책(현재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25%)에 따른 가계부채율 증가,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규제 강화에 기인한 가계 타격, 스웨덴 코로나화 약세, 부동산 가격하락,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따른 대(對)영국 스웨덴 수출기업 타격 등 위기감 증가

###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9.69	9.76	9.84	9.91	9.98	10.05	10.12
명목GDP	십억 달러	575.3	498.1	511.3	535.8	551.4	535.2	586.9
1인당 명목GDP	달러	46,682	48,604	49,416	52,168	53,828	55,371	56,914
실질성장률	%	2.7	4.2	2.5	2.4	2.5	1.6	1.6
실업률	%	7.9	7.4	6.9	6.6	6.3	6.4	6.4
소비자물가상승률	%	-0.2	0.0	1.0	1.7	2.0	1.9	1.7
재정수지(GDP대비)	%	-1.5	0.0	0.9	1.4	0.9	0.4	0.2
총수출	백만 달러	179,700	152,100	151,400	165,200	178,300	173,400	184,700
(對韓 수출)	"	1,230	1,127	1,362	1,397	1,862	n/a	n/a
총수입	"	162,200	138,500	139,900	154,400	169,600	157,000	166,400
(對韓 수입)	"	904	786	830	957	1,047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17,500	13,500	11,500	10,800	8,700	16,400	18,300
경상수지	"	26.5	20.7	19.2	15.0	9.5	24.2	19.5
환율(연평균)	현지국/US\$	6.86	8.43	8.56	8.65	8.23	8.65	9.27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91.6	149.4	199.5	227	196	400.8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40.3	62.0	187.4	121.0	99.0	n/a	n/a

주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자료 : E.I.U(2019년 9월 자료 기준)

##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유로존 경기부진 장기화 및 브렉시트가 스웨덴 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
- 난민유입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으로 경제침체 가능성도 상존
- 스웨덴 글로벌 기업들이 원가절감 위한 구매선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기회는 증가 전망

### 가. 유로존 경기부진 장기화

#### 유로존 8월 제조업 PMI 지수 47p, 7개월 연속 경기 위축

- 미-중, 미-EU 간 무역 분쟁으로 해외수요 급감, ECB에서는 추가 통화완화 정책 가능성 발표
- 독일 등 주요국 제조업의 수축국면 지속, 유로존 경기부진 장기화 우려 고조

### 나.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변화

#### 영국은 스웨덴 수출(상품)의 6.4% 차지(스웨덴의 수출 7위국)

- 2018년 스웨덴의 대(對)영국 수출액은 91.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0.14% 증가
- 6% 내외이던 수출증감률이 브렉시트 발표이후 계속 하락세
-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불사 등 EU 탈퇴 단행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대(對)영국 수출이 많은 스웨덴 제조업체들과 영국 진출 스웨덴 기업들에 큰 타격 예상
- 브렉시트 결정 이후 스웨덴 중앙은행은 경기위축을 우려, 당초 2017년 상반기까지 유지 계획이었던 저금리 기조를 2020년에도 지속 유지 전망

### 다. 난민유입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

- 난민유입 증가로 스웨덴의 재정부담 증가
- 단기간에 많은 난민이 몰리면서 스웨덴의 난민 수용비용 크게 증가
- \* 난민수용인원 : 16만3천명(2015년), 3만 명(2016년), 2만6천명(2017년), 2만2천명(2018년)
- 폭력과 범죄 증가 등 사회문제 야기
- 총기사고 사망자 수 증가 등 사회불안 가속
- \* 사망자수 : 8명(2015년)→14명(2019년)으로 증가(스웨덴 통계청, 2019년 9월 자료)

## 라. 글로벌 대기업의 원가절감 노력 배가

### 원가절감 압박

- 글로벌 기업들이 부품·장비 구매선을 기존의 유럽 일변도에서 아시아로 전환 또는 다변화하려는 움직임 확대
  - Volvo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조립 라인 설비를 유럽 및 일본에서 구매해 왔으나, 2014년 8월 처음으로 한국산 채택(W사, 1,200만 달러)
  - ABB(로봇사업 부문)도 한국산 부품에 대한 관심 증가
  -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 전망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 필요
- 엔저와 함께 일본-EU FTA 발효(2019년 3월)로 한국산 제품의 일본산 제품 대비경쟁력 약화 → 그동안 한-EU FTA로 누렸던 우리 제품의 비교우위 잠식우려 →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필요
- 저금리정책 장기화에 따른 스웨덴 크로나화 가치 하락 → 급격한 환율 변동성 예의주시 필요 → 계약 시 환율변동에 따른 요인 적극 고려 필요



##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로 2020년 스웨덴 GDP성장률은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글로벌 기업들의 원가절감 압박으로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는 확대 전망

#### 가. 정치 환경

##### 스웨덴 총선

- 2018년 9월 9일 실시한 스웨덴 총선, 좌파연합이 중도우파를 누르고 승리
  - 사회민주당 주도 좌파연합이 40.6%로 0.3%p 차이로 중도우파를 누르고 승리했으나, 수상 임명 및 내각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총선 후 4개월이 지난 2019년 1월 21일에 신정부 출범
  - 차기 총선은 2022년 9월 예정

#### 나. 경제 환경

##### 2020년 스웨덴 GDP 성장세 1.6% 전망

-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및 스웨덴 코로나화 하락으로 2020년 스웨덴 GDP는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인 1.6% 전망
  - 민간소비와 공공소비가 각각 1.5%와 1.4%씩 증가 전망이나 고정투자는 2019년 대비 2.4%p 증가한 2.1% 전망

##### 부정적 요인

- 저금리정책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 스웨덴 중앙은행에 따르면, 가계소득 대비 부채율은 156%, GDP 대비 가계부채율은 85.9% (2017년 기준) 현재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25%
-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강화에 기인한 가계 부담 가중—부동산가격 대폭 하락

-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 2018년 초 스웨덴 정부가 도입한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규제 강화로 가계부담 가중
- 브렉시트, 대(對)영국 스웨덴 수출기업 타격
  - 브렉시트 영향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2018년 2.5% 성장했으나,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로 2019년과 2020년에는 1.6%씩 성장에 그칠 전망
- 글로벌 정치 불안 및 통상환경 악화
  - 미 트럼프 내각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와 자국 산업 보호 확대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스웨덴 기업과 대미(對美) 수출제조업 매출 감소
  - 미-중 통상마찰,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미-터키 간 통상마찰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 긍정적 요인

- 글로벌 기업, 원가절감 위해 구매선 다변화 움직임
  - 글로벌 기업의 부품·장비 구매선 다변화 움직임으로 우리 기업 진출 기회 확대
  - 부품장비 분야 한국산 인지도 점차 향상
- 저금리기조에 따른 수요 확대 및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
  - 내수 진작을 위해 당분간 저금리 기조 유지계획, 소비수요 확대 기대
  - 프리미엄 제품(삼성 Note 10+ 등 고급사양 핸드폰, OLED TV 등) 수요 확대추세

## 다. 산업 환경

### 산업 구조

- 산업규모 및 비중
  - 2018년 스웨덴의 총 부가가치(GVA)는 5,369억 달러
  - 2017년 기준, 1차 산업(1.2%), 2차 산업(건설업포함, 25.1%), 3차 산업(73.7%)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가 GDP의 20%, 총 수출의 77%를 차지
- 산업 현황
  - 스웨덴은 1960년대 이후 산업 구조 고도화 추진에 따라 소비재와 1차 산업 비중이 감소한 반면, 기계 산업 등 중공업이 발달하면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중 확대
  - 스웨덴은 내수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산업화 초기부터 수출주도형 국가로 성장, 일찍부터 스웨덴 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 라. 정책·규제 환경

### 산업 정책

- 스마트 인더스트리 정책(Industri 4.0)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정책으로 2016년 스웨덴 정부가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립, 4개 분야 선정하여 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
  - 제조업의 전략적 연구. 혁신 플랫폼으로 'Produktion 2030' 설정 → 6대 과제는 자원의 효율적 생산, 유연한 생산, 가상 생산, 사람의 생산 시스템화, 순환 생산시스템 및 유지보수, 통합생산 및 생산개발 등

#### 스마트 인더스트리 주력 분야

분야	추진방향
Industri 4.0	제조업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생산	자원의 효율적 활용 통한 생산방식의 미래지향적 개선
제조업의 지식향상	제조업 전반 경쟁력 향상
테스트베드 스웨덴	창의적 기업 환경 조성을 통한 제조업기반 매력도 제고

자료 : 스웨덴 산업부(2019년 9월 기준)

- 스타트업 육성정책
  -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 및 세계 시장 진출지원 강화
  - 스타트업 육성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원천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수행
  - 스웨덴의 R&D 규모는 GDP의 3.32%(2017년 기준), 혁신기술 개발에 활발히 투자
  - Vinnova(스웨덴 혁신청)를 주축으로 전국에 소재한 창업 지원센터를 통해 디지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게 투자펀드와 지원 자금 조성
-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법인세 지속 인하
  - 1980년대 52%, 1990년 30%, 2013년 22%, 2019년 21.4%

### 규제

- 저탄소 정책(스웨덴)
  - 스웨덴 정부는 저탄소 전략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 2030년 교통 분야 화석연료 퇴출, 2045년 온실가스배출 제로화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위해 2018년 7월 Bonus Malus System 시행
  - 전기차 충전설비 확대, 친환경 자동차 및 리튬이온전지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
    - \* Bonus Malus System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신차 구입 시 3년간 높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하이브리드·전기차 구매 시에는 보조금 지급(6만 크로나/USD 6,200)

- EU 공동규제로 이산화탄소 규제(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에 2021년 대비 15%, 2030년에 37%로 감축), WLTP 신 연비테스트(신규 자동차연비 통합테스트 시스템 방식 도입), 실 주행테스트(RED) 등
- GDPR 발효로 개인정보 취급 시 주의 필요
  - GDPR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2018년 5월 25일 발효. EU 파트너와 교신 과정에서 자칫 문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EU 기업과 거래 시 주의 필요

## 2 시장 분석

- 스웨덴은 ICT, 패션, 자동차, 산업기계 등이 발달한 곳으로 북유럽 진출 교두보로 활용 가능
-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수출입 산업 구조를 이루고 있어 교역 확대는 물론 기술 이전, 투자교류(M&A 포함)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시장

### 가. 시장 특성

#### 1천만의 협소한 내수시장 극복 위해 일찍부터 해외 시장 진출

- 일찍부터 수출주도형 산업 구조 발달, 글로벌 기업 육성 및 산업발전
  - 볼보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3사를 비롯해 에릭슨(통신장비) 등 다수 글로벌 기업과 강소기업을 보유한 제조 강국이자 스포티파이(음원스트리밍) 등 6개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스타트업 허브 국가
  - ICT, 패션, 디자인, 생명공학, 자동차, 재생에너지, 산업기계, 자동화설비, 제지 산업, 광업(철광석) 등 다양한 분야 발달
- 북유럽 진출 교두보 역할
  -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북유럽과 EU 시장의 주요 연결통로
  - 시장규모 또한 주변국과 관계 및 지정학적 접근성을 감안하면, 노르딕과 발틱 3국을 포괄한 인구 3천만의 고급 소비 시장 허브(Hub)로 보는 것이 타당. 50%를 상회하는 EU국 교역 비중은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 교두보로서의 활용가능성 제시

### 나. 교역

#### 수출주도형 산업 구조

- 스웨덴은 수출주도형 산업 구조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는 GDP의 20%, 수출의 77% 차지
  - 2018년 스웨덴의 대외 수출액은 1,659억 달러
  - 주 교역국은 EU와 인근 노르딕 국가로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전체 교역량의 약 60%

#### 높은 해외 의존도

- GDP 대비 연간 수출입 규모가 70%를 상회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60%대로 하락(2017년 수출 1,531억 달러, 수입 1,540억 달러/2018년 수출 1,659억 달러, 수입 1,702억 달러)

## 스웨덴 대외교역 현황

(단위 : 십억 달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출	164.6	140	139.9	153.1	165.9
수 입	162.2	138.4	140.7	154.0	170.2
무역수지	17.5	1.6	-1.7	-1.3	-4.2

자료 : GTA(2019년 9월 기준)

## 2018년 스웨덴의 상위 교역국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	수출액	점유율	국가	수입액	점유율
1	독일	17,630	10.62	독일	30,500	17.92
2	노르웨이	17,227	10.38	네덜란드	15,983	9.39
3	핀란드	11,508	6.94	노르웨이	14,012	8.23
4	덴마크	11,412	6.88	덴마크	12,029	7.07
5	미국	10,682	6.44	중국	8,992	5.28

자료 : GTA(2019년 9월 기준)

## 다. 투자

### 투자 현황

#### ○ 스웨덴의 FDI 유입 현황

- 스웨덴의 자유무역 및 규제 완화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투자유입액 강세
- 2008년 371억 달러 기록 후 감소세 보이다 2017년 121억 달러, 2018년 99억 달러로 회복

### 연도별 FDI 유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FDI 순유입액	40	84	176	121	99

자료 : OECD(2019년 9월 기준)

- 국가별로는 EU 지역의 투자가 45%로 가장 많고, 아시아 국가로는 중국 투자가 높은 편

### 국가별 FDI 유입 현황

(단위 : 백만 크로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EU 28개국	4,301	7,388	-9,988	22,841	71,312
중국	2,126	7,298	8,657	..	14,437
일본	7,795	...	3,004	10,144	10,531
미국	-38,706	12,559	45,746	-12,226	18,877
총 계	27,652	58,176	102,104	159,075	115,157

자료 : 스웨덴 통계청(순 유입 기준, 2019년 9월 기준)

주1 : 대미(對美) 평균 환율 : 1달러=스웨덴 크로나 6.86(2014년), 8.43(2015년), 8.56(2016년), 8.53(2017년), 8.69(2018년)

주2 : 마이너스(-) 표시는 투자 상환액이 투자액을 초과함을 나타냄

○ 스웨덴의 FDI 유출 현황

- 스웨덴의 FDI 유출액은 FDI 순유입액을 초과하는 양상이나 소비침체 극복을 위한 스웨덴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된 2014년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한 91억 달러, 2018년에는 196억 달러 기록

**연도별 FDI 유출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FDI 순유출액	91	129	45	227	196

자료 : OECD(2019년 9월 기준)

**국가별 FDI 유출액 현황**

(단위 : 백만 크로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EU 28개국	14,810	34,246	33,885	51,896	141,871
중국	6,605	16,438	6,083	2,388	5,816
미국	-29166	40676	-8151	24066	7,149
한국	-287	-238	1,358	634	-271
총계	63,075	121,393	49,839	256,226	154,565

자료 : 스웨덴 통계청(순 유출 기준, 2019년 9월 기준)

주1 : 대미(對美) 평균 환율 : 1달러=스웨덴 크로나 6.86(2014년), 8.43(2015년), 8.56(2016년), 8.53(2017년), 8.69(2018년)

주2 : 마이너스(-) 표시는 투자 상환액이 투자액을 초과함을 나타냄

 **한-스웨덴 투자 현황**

○ 스웨덴의 대(對)한국 FDI 현황

- 스웨덴의 대(對)한국 투자 신고액은 2015년 850만 달러, 2016년 702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다가 2018년 284백만 달러까지 회복
- 대부분의 스웨덴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진출, 현재 한국진출 중인 스웨덴 기업은 약 120여 개사 (IKEA, Wallenius Logistic, Autoliv, Scania, Envac, Ericsson 등)

**스웨덴의 대(對)한국 FDI 현황**

(단위 : 신고 건수, 천 달러)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	8,499	11	7,020	15	203,157	12	284,57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8년 9월 기준)

○ 한국의 대(對)스웨덴 투자동향

- 한국의 대(對)스웨덴 직접투자(신규 및 증액투자)금액은 2017년 신고 14건, 금액 198,052천 달러, 2018년 신고 10건, 금액 253,203천 달러(자료 : INSC)

- 현재 스웨덴에 진출하여 영업 중인 한국기업은 총 12개사(법인 7, 지사 5)
  -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제일노르딕이 법인으로 진출했으며, 대한항공 카고, 넥센타이어, HS AD, 범한판토스, 유코카캐리어스가 지사로 진출

## 투자진출 진입장벽

- 높은 인건비 및 사회보장제
  -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제(급여의 31.42%) 납부 의무, 인건비가 높은 편
- 기타 불편요소
  - 우리나라 운전면허 불인정
    -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스웨덴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만 인정
    - 일정 기간 체류하는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예외항목을 두어 체류 기간 동안 외국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비용 발생
  - 비자 발급 소요 기간 장기화
    - 스웨덴 이민청은 홈페이지에 비자발급 소요 기간을 12~15개월로 공식 공지
    - 우리 기업의 대(對)스웨덴 주재원 파견에 상당한 어려움 발생

###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 가. 교역

##### 상호보완적 수출입 산업 구조

-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수출입 산업 구조를 이루고 있어 교역규모 확대 잠재력 보유 (스웨덴은 한국의 수출 51위국, 수입 37위국)
  - 양국 간 교역규모는 US\$ 29억이나 실질 교역규모는 US\$ 45억 내외 추산
    - \* 2018년 한국의 대(對)스웨덴 직수출은 US\$ 10.4억이나, 제3국 통한 우회 수출규모 US\$ 15억 내외로 파악
- 주요 교역품목

#### 2019년 대(對)스웨덴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코드)	2018년		2019년 1~7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수출	1,047	16.9	611	-2.5
1	승용차(7411)	318	29.7	199	-6.4
2	전기자동차(7414)	46	231.4	48	487.3
3	아연도강판(6134)	36	-31.3	36	64.7
4	축전지(8352)	183	29.7	31	-73.1
5	자동차 부품(7420)	52	13.7	28	-17.1
6	합성수지(2140)	40	36.6	26	3.3
7	타이어(3203)	41	12.1	25	-7.0
8	도금강판(6137)	20	-2.3	12	51.2
9	건설중장비(7251)	18	19.8	10	-12.4
10	배전 부분품(8492)	20	-8.0	10	-17.5

자료 : KITA(2019년 9월 기준)

#### 2019년 대(對)스웨덴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코드)	2018년		2019년 1~7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수입	1,862	5.7	1,056	-0.9
1	승용차(7411)	212	68.0	169	41.6
2	의약품(2262)	140	43.8	90	2.8
3	원동기(7111)	162	56.3	70	-17.2
4	기타 플라스틱 제품(3109)	75	228.1	51	26.1

5	냉연강판(6133)	34	82.5	43	191.7
6	화물자동차(7412)	165	-19.0	40	-51.0
7	중후판(6131)	42	34.5	36	143.8
8	합성수지(2140)	68	14.9	34	-22.3
9	기타 자동차(7419)	59	23.0	34	-8.1
10	기타 철강 제품(6192)	54	1.7	29	-14.2

자료 : KITA(2019년 9월 기준)

- 한국 대표 수출상품의 현지 시장점유율 증가 지속
  - TV(80%), 휴대폰(27%), 타이어(10%), 자동차(8%)
  - 2018년부터 한류점화에 편승 K-beauty 및 K-food의 연간 수출증가율 100% 상회

### 우리 기업 수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 W사의 시장 진출 성공 사례 및 시사점
  - W사는 자동차 조립라인 자동화설비 생산업체로 Volvo 승용차의 신규모델 생산(2016 모델)용 시설개보수 및 확장증설 프로젝트에 참여, 수출에 성공
  - 당초 한국산 자동화설비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던 볼보 경영진에게 현대·기아차의 성공 저변에 한국의 자동화설비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신속 정확한 소통으로 신뢰를 확보하여 납품 가능
- G사의 시장 진출 성공 사례 및 시사점
  - G사는 마스크팩, 핸드크림을 주력으로 하는 화장품생산업체
  - G사의 진출 성공 요인은 틈새시장 공략 주효, 유니크한 패키징과 친근한 제품명
  - 스웨덴어로 향기를 뜻하는 Duft&Doft의 브랜드명 채택과 Stockholm Rose라는 향을 개발, 현지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한편 높은 가격경쟁력과 천연성분을 활용하여 여타 제품과의 차별력 강화, 2019년 초 50만 불 규모의 첫 계약 체결
- N사의 실패 사례 및 시사점
  - 휴대용 의료장비를 생산하는 N사는 CE 인증, ISO 인증, 특허 보유에도 불구하고, 바이어와의 소통 문제로 주문받았던 물량도 취소
  - 담당자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우리 기업에 실망한 스웨덴 바이어가 주문물량 취소

## 나. 투자

### 우리 기업 투자진출 동향

- INSC 기준, 한국의 스웨덴 직접투자(신규 및 증액 투자) 금액은 2017년 신고 14건, 금액 198,052천 달러, 2018년 신고 10건, 금액 253,203천 달러

- 스웨덴 진출 한국 기업은 총 12개사(법인 7, 지사 5)
  - 법인은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제일노르딕 등 7개사
  - 지사는 대한항공 카고, 넥센타이어, HS AD, 범한판토스, 유코카캐리어스 5개사

### 우리 기업 투자진출 성공 사례 및 시사점(K자동차)

- 성공 사례
  - 2001년 스웨덴에 법인 설립 이후 지속 성장한 K자동차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현지화를 성공 요인으로 간주
  - 유럽인들의 감성에 맞는 디자인 채택과 유럽 내 생산으로 스웨덴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였고, 당시 관련 업계에서 일반화된 3년 개런티 기간을 7년으로 대폭 늘려 소비자들의 관심 유도
  - 활발한 광고와 스폰서, CSR 활동 등에 적극 참여 통한 기업 이미지 향상 노력
- 시사점
  - K자동차가 스웨덴에서 좋은 경영성과를 거두는 것은 자신의 강점을 스웨덴 시장에 잘 조화시킨 결과
  - 강점 발휘 가능 세부시장을 찾아내고, 시장에 부합하는 최적의 포지셔닝 전략을 구축한다면, 스웨덴과 같은 선진기술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2019년 6월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스웨덴과 경험개발 노력 확대 추진
  - 1) KSC(Korea Startup Center) 설립 추진-스타트업 분야 협력
    - 유망한 우리 스타트업의 현지 안착을 지원하는 현지 창업생태계와의 연결 허브로서 2020년 중 KSC를 구축 추진
    - 북유럽 과학기술센터 개소 예정
    - 2020년 6월 노르딕 과학기술센터 개소 계획으로 준비 중
    - 한-스웨덴 기술협력 파트너 구성, 한국의 초미세먼지 분야 공동연구 등
  - 2) 한-스웨덴 바이오클러스터 포럼 개최 및 파트너링
    - 한-북유럽 4개국 업무협약(2018년 5월 바이오코리아) 이후 한-북유럽 창업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 Ⅲ. 진출전략

- 한-EU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각종 인증과 환경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높은 시장이어서 상품 수출 시 유념 필요

####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스웨덴 시장 SWOT 분석>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 margin-bottom: 10px;">S</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10px;"> <p><b>강점 (Strength)</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과 상호보완적 수출입 구조</li> <li>• 한국산 기계/장비류에 대한 현지 인지도 상승</li> <li>• 한-EU FTA 발효</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709238;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709238;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 margin-bottom: 10px;">W</div> <div style="background-color: #709238; color: white; padding: 10px;"> <p><b>약점 (Weaknes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필수조건인 각종 인증취득 미비</li> <li>• 인증과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증가</li> <li>• 중소기업 의사소통 능력 취약</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4CAF5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4CAF5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 margin-bottom: 10px;">O</div> <div style="background-color: #4CAF50; color: white; padding: 10px;"> <p><b>기회 (Opportunit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조한 성장세 지속</li> <li>• 글로벌 대기업의 원가절감 노력 배가</li> <li>• 한류 열풍 점진적 확산</li> <li>•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9575CD;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9575CD;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 margin-bottom: 10px;">T</div> <div style="background-color: #9575CD; color: white; padding: 10px;"> <p><b>위협 (Threa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EU FTA 체결로 일본산 가격경쟁력 상승</li> <li>• 유럽 경제둔화에 따른 스웨덴 경기위축 우려</li> <li>• GDPR 시행-바이어 정보 발굴 및 접촉 난이도 기증</li> <li>• 높은 EU 역내교역 비중(60%)</li> </ul> </div>

전략방향	세부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의약/의료기기, 기계/장비, 통신장비 제조업체에 부품 공급 확대</li> <li>- 한국산 기계/장비/부품 인지도 상승 활용</li> </ul>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류열풍 확산(K-Beauty, K-Food 인지도 확산)</li> <li>• 웰빙 세대를 위한 프리미엄 제품 진출</li> </ul>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유통 시장 진출 고도화</li> <li>- 프리미엄 소비재</li> </ul>
WT 전략 (위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시장 경쟁 심화를 기회로 역이용</li> <li>• SNS 등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li> </ul>

진출전략
현지 글로벌 기업과 GP 사업 확대
K-Beauty, K-Food 사업 고도화
한류 비즈니스 접목 유통망 진출
현지 온라인 시장 진출 강화

##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2-1. 선택과 집중-수입수요 증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공략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스웨덴의 저금리, 양적완화정책 시행에 따른 소비 시장, 설비투자 활성화
- E-Commerce 시장, 연간 10% 내외의 가파른 성장세
- 주요 기업,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원가절감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전략 추진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경제위축불구, 저금리정책으로 소비 시장 활성화
- 한류 확산으로 K-Food, K-Beauty에 대한 인지도 상승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품질과 디자인으로 차별화
  - 현지 유통망 히트상품의 소비 키워드는 웰니스, 친환경, 아이디어 제품, 실용성
- K-Goods 현지 마케팅 강화
  - 한류 확산으로 K-Food, K-Beauty에 대한 인지도 상승
    - 스웨덴 최대 백화점 Åhlens에서 K-Beauty 제품 소개
    - 스톡홀름 소재 글로벌 화장품 유통체인 Sephora 매장에 K-Beauty 제품 코너 마련
    - Fab Beauty Bar사 2019년 3월 한국 화장품 오프라인 숍 오픈
  - 팝업 스토어 및 한국문화축제 한국관 부스 참가를 통한 K-Beauty, K-Food 홍보 강화
- 주요 품목별 유망 전시회, 온라인 유통채널 활용
  - 스웨덴이나 유럽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를 바이어 발굴, 자사 제품 시장성 파악, 제품인지도 제고를 위한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
    - \* 유럽 전시회 참가기업의 30~50%가 유럽 이외 출신이므로 유럽과 제3국 진출 플랫폼으로 기능
  - K-패션 등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저가형 소비재는 온라인 유통망 입점
- 분야별 인증, 스웨덴어 라벨링 등 사전준비 철저
  -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수출을 위한 기본 필수조건 사전 충족

## 2-2. ICT 융합, 친환경 등 스웨덴의 차세대 성장 시장 타킷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EU,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ICT 융합기술 부문 집중 투자
  - \* EU Horizon 2020년 정책 연계, 총 770억 유로 R&D 자금 지원(2014~2020년), 핵심 육성 분야는 ICT, 나노, Robotics, BT. 이중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은 28억 유로
- 스웨덴, 차세대 집중 육성대상 산업을 선정하여 대규모 투자
  -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ndustri 4.0 정책 : 제조업의 디지털화 위해 2016~2019년까지 7,800만 크로나(860만 유로) 투자
- 스웨덴 주요 기업, 산업재편에 따른 기술고도화 전략 추진 중
  - \* Volvo, Scania 등 완성차업체의 소재 경량화, 신기술 보유 스타트업 투자전문 벤처캐피탈 설립 활발  
Atlas Copco사 디지털화(사물인터넷 연계 자동생산 체계), Ericsson사 E-Mobility 협력수요 확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4차 산업혁명, 산업경쟁력 제고위한 ICT 융합기술 부문 집중투자
- 스마트 인더스트리 정책(Industri 4.0)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으로 2016년 스웨덴 정부가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립, 4개 분야 선정하여 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
  - 제조업의 전략적 연구, 혁신 플랫폼으로 'Produktion 2030' 설정→ 6대 과제는 자원의 효율적 생산, 유연한 생산, 가상 생산, 사람의 생산 시스템화, 순환 생산시스템 및 유지보수, 통합생산 및 생산개발 등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스웨덴 성장 시장의 기회 활용, 기존 단발성 부품공급 위주에서 공동 R&D, 기술제휴 등 스웨덴 기업과의 협력관계 재정립(5G, 스마트 제조 분야 유망)
- 현재 스웨덴과 한국은 EUREKA 과제 중 하나인 Primo 5G 프로젝트 공동연구 진행
  - 스웨덴(왕립 공대, Ericsson 사), 핀란드(Alto 대학, Cumu Core 사) 영국(Kings College), 독일(National Instrument), 한국(연세대, KAIST, 광주 과기원, 중앙대, KT, EU Cast 사) 등 유럽 6개 기관, 한국 6개 기관 참여
-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 이상적인 협력 파트너
  - 스웨덴은 가치사슬 단계별 스마트한 아웃 소싱을 활용, 완성품 제조하는 open-innovation형 산업 구조
  - 가치사슬 쏠단계를 cover하는 한국의 산업 구조상 대기업 간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 중소·중견 기업의 현지 글로벌 기업 밸류체인 진입 통한 협력범주 확대 가능성 다대

- 영업과 R&D 팀의 복합 마케팅 추진, 철저한 품질관리와 레퍼런스 형성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 전략이 관건

– 글로벌 기업의 복합적 요청사항에 대한 개발팀과 영업팀의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중요

## 2-3.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수립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높은 비관세장벽 상존 : 각종 인증 요구, 환경규제 등, 현지 파트너 통한 정책변화 모니터링 필요
- 친환경 제품, 친환경 생산 중시
-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은 스웨덴 기업과 공동연구 진출 유리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높은 비관세장벽 및 인증제도 강화(EU 공동)
  - 스웨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관세 장벽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 현재 진행 중인 무역기술 장벽은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 제한 강화,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등
  - 스웨덴 요구 대표 인증은 CE 인증, REACH, CPNP, RoHS, e-Mark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현지 파트너를 통한 정책변화 모니터링 필요
  - 유망품목은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전자 제품 등 공산품 전반
- TBT

#### ①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 2017년 5월 24일, EU 집행위는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 내 비스페놀A(이하 BPA)의 이행기준치 (migration limit)를 기존의 0.1mg/l에서 0.04mg/l로 강화
- 납(lead) 제한 기준 강화, 페놀(Phenol) 제한 기준 추가 등 장난감 성분에 대한 규제

#### ②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 제한 강화

-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 채택
-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 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

③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 2019년 5월, EU 집행위는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를 2019년 11월부터 역내 반입을 제한 또는 금지
- EU는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 강화
- 사용금지 물질은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으로, 시장반입은 2019년 11월 22일 금지했고, 역내 판매는 2020년 2월 22일부로 금지 예정

○ 인증

① CE

- EU 시장 내 안전 관련 통합 인증마크
- 제품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
- 1993년 7월 22일 도입, EU 지침 93/68/EEC를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
- CE 인증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류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 보호 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

② RoHS-전기·전자 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 RoHS는 전기·전자 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지침
-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아래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 제품은 판매 금지
  - 납 : 0.1%, 수은 : 0.1%, 육가크롬 : 0.1%,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카드뮴 : 0.01%,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③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규정
-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 관리 대상

④ CPNP(화장품 인증)

- 화장품을 스웨덴 등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필요
- 화장품은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
- 규정 적용은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
- EU 역외 기업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역내 법적 책임자 지정
- 우리나라 업체의 경우, 역내 책임자(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이 대행업체로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하면 되는데, 필요서류로는 ISO 인증서 사본, 제품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분석증명서 (CoA : Certificate of Analysis) 등

### ⑤ e-Mark

- EU 자동차 분야 승인제도로서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제도
-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인증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 인증기관인 교통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함
- 시험 소요 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1~2개월,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
- 시험 완료 후 2주 이내 인증서 발급 가능
- e-Mark 옆에 붙는 숫자는 국가마다 다르며, 스웨덴 코드는 5

### 3 한-스웨덴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3-1. 자동차 산업 분야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자동차 산업은 스웨덴의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일자리 면에서 매우 중요
- 자동차 부품, 기계장비도 제조업 발전 동력으로 연관 산업 및 시장 지속 증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스웨덴은 Volvo, NEVS, Scania 등 3개의 완성차업체 보유
  - 2017년 총 생산규모는 총 919,120대(전년 대비 12.4% 증가)
  - 자율주행차량, 전기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활발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자율주행차량 및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개발 협력
  - 전기 배터리, 2차 전지 등 자율주행차량 및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공동개발 기술제휴
  - 양국 기업 간의 전기차 핵심 부품 개발 및 성능 향상

### 3-2. 콘텐츠와 소비재 유통 분야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스웨덴 게임 및 전자상거래 시장 지속 성장
- 한류열풍 확산으로 한국산 제품 인지도 상승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스웨덴 게임 및 전자상거래 시장 지속 성장
  - 게임 시장(2017년 17.2억), 전자 상거래 시장(2018년 770억)
- K-pop에서 시작된 한류열풍이 음식, 화장품 등 소비재 전반의 경쟁력 확대로 확산
  - (화장품) 스웨덴 우수 유통채널에 입점, 스킨케어 → 메이크업으로 상품군 확대
  - (식품) 건강식 이미지 제고, 한국산 면류와 해조류, 소스류 수요 확대
  - 수출증가율 : 화장품(↑129.6%), 해조류(↑179.1%), 기타 농산가공품(↑60.3%)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수요자 중심의 한류 콘텐츠화 및 『한류=문화』 인식 포지셔닝 위한 상호노력 필요
  - 게임 시장 대상 한-스웨덴 양국 산업체 간 협력(게임 공동개발, 상호 시장관로 개척)
- 현지 유통채널과의 Global Partnering 사업 개발 추진
  - (식품) 한국문화축제 참여 K-Food 홍보, (화장품) 스웨덴 내 유력 화장품 디스트리뷰터와 협업, K-Beauty 팝업 행사 개최, 한국문화축제 무역관 부스참여 → 다양한 이벤트 통해 K-Beauty 제품 홍보

## 3-3. ICT 분야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스웨덴은 ICT 기술 선도국가
- 4차 산업혁명으로 5G, AI, 로봇 연구 활발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스웨덴은 ICT 기술 선도국가로 에릭슨 외에도 관련 유망기업 다수 배출(Spotify, Skype, Mojang, AXIS, King), 글로벌 IT/텔레콤 기업들과 공동 기술개발 협력을 통한 진출
- 5G, AI 연구 활발
  - Ericsson 사는 5G 분야 글로벌 선도 주자, 2020년 5G 상용화를 위해 연구 박차
  - AI 부문 연구개발을 위해 국립AI연구소 개소(2019년 2월)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5G 기술협력, 광대역통신망 관련 품목 수출 활성화
  - 스웨덴의 5G 상용화 관련한 기술협력 및 품목 수출 가능성 다대

## 3-4. LIFE SCIENCE 분야(보건의료)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스웨덴은 초고령 사회로 의약품 수요 지속 증가
- IoT 기술력을 접목한 e-Healthcare 분야 성장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스웨덴은 초고령 사회로 의약품 수요 지속 증가
  - 2018년 의약품 시장은 U\$53억(전년 대비 9.28% 증가), GDP의 12%를 건강의료 서비스에 지출
  -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등 만성질환은 원격진료를 통한 장기관리 필요 → IoT 기술력을 접목한 e-Healthcare 분야 성장 중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의약품 개발
  - 스웨덴은 바이오뱅크, 레지스터 등 세계 선도 생명과학 분야 자산 보유, 공동 연구개발에 유리
  - 우리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내재

## 3-5. 스타트업 분야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스웨덴, 벤처기업 및 혁신 창업기업 육성전략 추진
- 2018년 EU의 PSD 2(Payment Service Directive II) 발효와 브렉시트 우려로 인해 유럽 국가 간 핀테크 거래 금액 및 건수에 대한 스웨덴의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투자 급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기업 및 혁신 창업기업 육성전략 추진
  - ‘창업(Start-up)-성장(Scale-up)-회수(Exit Strategy)-재도전(Re-bound)’의 전 과정 지원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스웨덴은 핀테크, E-헬스 분야 기회 다대. 한국은 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기술력 보유 스타트업 다수
  - 핵심역량 분야의 상이로 기술협력에 의한 혁신성장 기대
  - 양국 스타트업 지원 전문기관 간 협력채널 형성 및 가동

## 3-6. 전기차 배터리 분야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스웨덴 정부 저탄소 전략으로 2030년까지 교통 분야 화석연료 퇴출 발표
- 친환경 자동차 및 리튬이온전지 기술개발 확대 추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저탄소 전략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까지 교통 분야 화석연료 퇴출
- 친환경 자동차 및 리튬이온전지 기술개발 확대 추진
  -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전기차의 가격경쟁력 확보, 성장 가속도 전망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스웨덴의 자원 수급과 한국의 기술력
  - 스웨덴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원료 산지이자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저렴한 전기 가격으로 생산 공장 운영에 유럽 최적의 조건
  - 우리나라는 2차 전지 분야 글로벌 선두주자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제조 인프라 구축

## 4 진출 시 유의사항

무역사기 발생	상표권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업체 대상 무역사기 발생</li> <li>- 최근 들어 이메일 해킹으로 업체정보를 빼내 수출입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 극성, 피해기업 속출</li> </ul> </li> <li>■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메일 해킹업체가 스웨덴 바이어는 아니며, 다만, 신뢰도가 높은 스웨덴 바이어를 사칭한 경우여서 우리업체가 방심하는 사이 어이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음</li> <li>- 이메일 해킹을 통해 한국업체와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거래업체 정보를 빼낸 후, 마치 거래업체인 양 한국업체와 이메일을 교신하면서 대금 수취은행을 해커계좌로 변경하도록 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횡행</li> <li>- 기존 거래업체로부터 갑자기 대금 수취인이나 수취 은행 변경을 이메일로 요청받을 경우, 반드시 거래처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li> <li>- 수취인 주소와 수취은행 소재지가 상이할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중요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스웨덴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표권 분쟁도 발생</li> <li>- 유압 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 S사는 스웨덴 P사와 오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오다 2009년 해당 부품사업 분야를 P사에 매각</li> <li>- P사는 동사업 분야를 별도분리, S사 로고와 함께 유럽특허처에 PS사로 등록하고 S사의 브랜드 별류를 이용하여 활발하게 사업 진행</li> <li>- P사에 부품사업부서를 매각한 S사는 P사와 관계정리 후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 신규 바이어를 발굴, 거래를 개시하려했으나 P사가 유럽특허처에 이미 등록한 PS 상표권으로 인해 S사 이름으로는 해당부품을 유럽에 수출할 수 없는 상황 직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SWT라는 새로운 브랜드와 기업명을 유럽특허처에 등록한 이후에야 새로운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었음</li> </ul> </li> <li>■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간과 재정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스웨덴 시장진출 시, 사전에 스웨덴 특허청이나 유럽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것을 권장함</li> </ul> </li> </ul>

샘플 송부는 EMS보다 DHL 이용	GDPR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 우편시스템에 문제가 많아 적기 배송이 어려운 상황</li> <li>- 한국에서 EMS로 샘플 송부 시, 통관 및 적기접수에 문제발생 다대</li> </ul> </li> <li>■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이 조금 높더라도 DHL의 DDP 서비스 이용 권장</li> <li>- 스웨덴에 샘플 도착 후 통관 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DHL사가 선처리하기 때문에 샘플이 원활하게 바이어에게 전달될 수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강화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 발효(2018년 5월 25일)</li> </ul> </li> <li>■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DPR은 EU 역내 투자기업 및 EU 거주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한국기업도 적용대상이므로 세심한 주의 필요</li> <li>- GDPR이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아니나 EU 파트너와의 교신 등에 있어 자칫 문제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주의 요망</li> </ul> </li> </ul>

##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404	대한수입액('18/US\$백만)	6.8
화장품	선정사유	한류열풍으로 2018년부터 한국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 현지 백화점, 마스크팩 등 기초화장품과 메이크업 제품 취급 시작,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음		
	시장동향	스킨케어와 색조화장품 등 대다수 화장품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구매 형성		
	경쟁동향	글로벌 브랜드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		
	진출방안	EU 화장품규제(No. 1223/2009) 준수 및 CPNP 등록 필수 가격경쟁력 못지 않게 친환경 제품이라는 예코인증 필요		
품목명 2	HS Code	94054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327	대한수입액('18/US\$백만)	0.7
LED	선정사유	노르웨이, 터널용 LED 램프 수요 증가 추세		
	시장동향	수입 증가		
	경쟁동향	현재 중국이 전체 수입 시장의 33%로 1위		
	진출방안	성공적 북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 제품과의 가격과 품질경쟁이 관건 한-EU FTA로 인한 관세혜택을 심분 활용,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CE 인증획득이 선결되어야 함		
품목명 3	HS Code	21030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187	대한수입액('18/US\$백만)	0.2
식품	선정사유	한류 확산으로 K-food 인지도 상승, 김치 등 한국식품의 건강식 이미지 제고		
	시장동향	수입증가		
	경쟁동향	한국은 스웨덴 식품 수입(소스류 포함) 33위국, 시장점유율은 0.14%로 아직 미미한 수준. 최근 한국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2018년 한국식품의 대(對)스웨덴 수출이 해조류 179%, 기타 농산가공품 60.3% 증가		
	진출방안	현지인들에게 잘 알려진 김치, 라면, 만두와 초고추장, 불고기양념 등 소스류를 중심으로 홍보활동 강화 알레르기테스트 등 식품 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 사전구비		
품목명 4	HS Code	85078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6.8	대한수입액('18/US\$백만)	0.75
리튬이온 배터리	선정사유	스웨덴 자동차 시장에 2018년 7월 1일 자료 Bonus-Mallus 시스템 발효.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등 기후 보너스 차량(친환경 차량) 구매 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휘발유, 디젤차량은 높은 자동차세 부과		
	시장동향	전기차 부품 중 하나인 리튬이온배터리도 동반 성장 기대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		
	진출방안	완성차업체 공급이 최우선 현재 LG화학과 Volvo승용차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2차 전지 생산업체인 스웨덴 Northvolt사와 우리업체 C사도 경협 프로젝트 진행 중		

품목명 5	HS Code	820730	수입관세율(%)	0
프레스금형	수입액('18/US\$백만)	24	대한수입액('18US\$백만)	1.2
	선정사유	불보승용차 및 NEVS(구 Saab)의 전기자동차 생산계획 등으로 수요 확대 예상		
	시장동향	연간 2천만~6천만 달러 범위로 추정되며, 자국 내 생산이 없는 관계로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		
	경쟁동향	프레스금형은 스웨덴 완성차업체가 해외 직구매하는 품목으로 공급선을 대외비 관리하기 때문에 경쟁업체 확인이 불가하나, 일본과 독일 등 유럽산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		
	진출방안	스웨덴 완성차업체들이 원가절감 압박으로 공급선 전환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고, 현대, 기아 등 한국산 자동차의 호조세를 뒷받침하는 한국 부품업체를 잠재 공급선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업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품목명 6	HS Code	848340	수입관세율(%)	0
로봇용 기어박스	수입액('18/US\$백만)	255	대한수입액('18US\$백만)	0.16
	선정사유	ABB(로봇사업부)는 기어박스 등 일부 주요 부품공급선을 아시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		
	시장동향	세계 최대 로봇 제조업체인 ABB사가 연간 로봇 생산대수를 3만 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향후 산업 로봇용 기어박스, 서보모터 수요 증가 기대		
	경쟁동향	주로 유럽과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과점한 상태		
	진출방안	기술 우수성 및 발전 가능성을 어필하고, R&D 등을 통한 동반성장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첨부

##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건설 서비스	수입관세율(%)	0
건설	수입액('18/US\$백만)	n/a	대한수입액('18/US\$백만)	n/a
	선정사유	건설 분야 전문인력 부족 심각		
	시장동향	스톡홀름, 요테보리, 말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난이 심각하여 주택건설과 인프라 구조 확대 필요, 전문인력 부족으로 스웨덴 건설업계 애로		
	경쟁동향	건설현장 인력은 라트비아 등 발틱 국에서 총당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태		
	진출방안	전기배선, 배관 등 전문 자격증 필요부문 유력		
품목명 2		콘텐츠	수입관세율(%)	0%
콘텐츠	수입액('18/US\$백만)	n/a	대한수입액('18/US\$백만)	n/a
	선정사유	스웨덴의 방송, 게임, 교육 분야 콘텐츠 부족		
	시장동향	콘텐츠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콘텐츠의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위주로 제한적		
	경쟁동향	시장점유율 상위국은 미국과 영국 등 유럽		
	진출방안	관련 전시회 참석을 통해 우리 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리고, 바이어들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 필요 교육, 게임, 방송 분야 콘텐츠 사업 진출 유망		
품목명 3		물류 서비스	수입관세율(%)	0
물류	수입액('18/US\$백만)	n/a	대한수입액('18/US\$백만)	n/a
	선정사유	물류 수요 증가		
	시장동향	2019년 기준, 스웨덴 진출 우리나라 물류 기업은 대한항공 카고(항공), 현대상선(해운), 범한판토스, 유코카캐리어스 유럽오피스 등 4개사 현재 스웨덴 물류 시장은 확대 추세로 범한판토스와 유코카캐리어스사 2017년, 2018년에 각각 진출		
	경쟁동향	글로벌 물류 업체가 대부분		
	진출방안	스웨덴 남부와 중부 지방을 잇는 물류단지 진출유력		

##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 개요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스웨덴 글로벌 기업과 한국 업체 간 협력 지원	- GP Sweden *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의 파트너링 지원사업	연중/ 스톡홀름
2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확대	- K-goods(식품, 화장품) 온라인 유통망 입점사업 * Ahlens, H&M 등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연중/ 스톡홀름

### 세부내용

#### ① 2020 GP Sweden(추진)

- Volvo, Scania 등 승용차 및 상용차 완성차 기업 구매부서와 국내 부품기업 간 1:1 상담기회 제공, 사후 관리, 납품계약 체결 지원
- 글로벌 기업의 1차 검토 후, 관심 기업 프로모션 기회 제공 → 파트너링 방식(인큐베이터 입주, 투자유치, 부품 소싱 등) 협의 → 파트너링 진행 → 무역관의 교신지원 등 사후관리

#### ② K-Goods 온라인 유통망 입점 사업

- 2018년 이래로 화장품, 식품 등 한국 소비재에 대한 스웨덴 내 수요 증가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 벤더 대상 한국 제품 프로모션 사업 진행
- 한국 제품 쇼케이스, 벤더 및 유통채널과의 1:1 상담 등 현지 온라인 유통망 입점 위한 지원

#### ③ 관할국 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 사업 추진

-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 제품 인지도 상승세
- 라트비아, 노르웨이 등 관할국 네트워크 구축, 한류 비즈니스 마케팅 신규 사업 추진 → 시너지 효과 거양 (예)라트비아, 노르웨이 → K-Beauty Pop-up Store 행사 개최

##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스웨덴 총선 (의회, 광역의회, 지방의회 의원 동시 실시)	2022.9월	4년마다 실시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정부 예산 발표	2020.6월	
EU-호주, 뉴질랜드 FTA 협상	2018. 7월부터 협상 시작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자/장소
소비재	패션, 선물용품, 인테리어 등 소비재	북구 디자인 박람회 (Formex)	2020.1.14 ~ 17/스톡홀름
전기·전자	전등 및 조명기구와 부품	북구 조명박람회 (Northern Light Fair)	2020.2.3 ~ 2. 8/스톡홀름
신소재·산업기기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각종 산업 부품 전반	엘미아 산업박람회 (Elmia Subcontractor)	2020년 11월 예정/엘미아
선박·조선	선박기자재	노르웨이 선박박람회 (NorShipping)	2021.6.1 ~ 4/오슬로 (2019년 개최, 격년개최)

## I. 한-스웨덴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 가. 스웨덴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 스웨덴의 잠재력

- EU 등 주요 경제권역 접근성 갖춘 지정학적 요충지
  - EU(독일 등 27개국), Nordic(노르웨이 등 4개국), Baltic(라트비아 등 3개국) 등 진출거점 활용가치 증대
- 제조업 강국, 글로벌 기업의 Open Innovation 활발
  - Eiricson, 볼보 등 30여 글로벌 기업소재. 현지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Open Innovation 활발
- 유럽 최고의 경쟁력 갖춘 Start-up 허브
  - Spotify 등 유니콘 6개사 배출, 연간 7만 개 내외의 Start-up 창업
    - \* 2013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Stockholm Tech Festa 참가 기업 증가 추이(방문자 2018년 36,000명, 2019년 35,000명)
- 혁신 지수 상위국가, 제4차 산업경쟁력 보유
  - Kista 등 스웨덴 전역에 43개의 클로스터 소재, 국내뿐만 아니라 덴마크, 노르웨이 등과의 글로벌 산학연 협력 추진 활발
    - \* 한국과 EUREKA 과제의 하나인 PRIMO 5G 프로젝트 공동연구 진행 중

#### 주요국 및 권역별 대(對)스웨덴 경제협력 현황

- 스웨덴 시장의 잠재력과 중요성으로 주요국은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스웨덴과의 협력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실정

주요국	경제협력 진행 사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eely 사 : Volvo 승용차 인수(2010), CEVT 사 설립(2013년)</li> <li>· 중국 컨소시엄 : Saab Automobile 사 인수(2012년) → NEVS로 전환</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EU, FTA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 공식 서명(2018년 7월), 발효(2019년 3월)</li> </ul>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역내 교역·투자 비중 우세</li> <li>· 영국의 브렉시트 절차 완료 후 영국과 개별 FTA 체결 고려</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lvo, Ericsson 등 스웨덴 대기업 다수 미국 시장 진출</li> <li>·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확대로 대미(對美) 수출기업 매출 감소</li> </ul>

스웨덴 경험과 연계된 유럽 시장의 변화와 기회

◆ 현재 EU 시장은 역내 교역 비중 다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은 1995년 1월 1일부로 EU 회원국 가입</li> <li>○ 2018년 기준, 스웨덴 수출 1,888억 달러, 수입 1,710억 달러, EU 역내 교역 비중 60% 상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한-EU FTA 정식 서명, 2011년 7월 1일부 잠정발효 → 2014년 3월 5일 정식 발효</li> <li>- 한-EU FTA 체결 이후 수혜품목의 대(對)스웨덴 수출 호조세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금리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로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li> <li>·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확대</li> <li>· 한류확산에 따른 한국 상품의 현지 시장점유율 상승세</li> </ul>

■ 소비성향 고급화, 스마트 소비 트렌드 확산

- 최근 소비 트렌드는 웰니스, 친환경, 혁신성, 실용성
-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급증(2018년 U\$89억, 최근 3년 연평균 14% 이상 성장)
-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로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LED TV, 고급 휴대폰, 자동차 등)

■ 한류 확산 가속화에 따른 협력수요 증대

- 한류 확산에 힘입어 2018년 K-beauty 및 K-food, 현지 주요 유통채널 입점 및 100%이상의 수출 증가율 실현
- 우리나라 대표 수출상품의 현지 시장점유율 증가 추이
  - TV(80%), 휴대폰(27%), 타이어(10%), 자동차 부품(10%), 자동차(8%) 등
- 양국 간 교역규모는 공식통계상 2018년 기준 U\$ 29억(수출 : U\$ 10.4억, 수입 : U\$ 18.6억)
  - 제3국 통한 우회 수출규모 U\$ 15억 추산

■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 협력범주 확대 잠재력 다대

- (한국) 밸류체인 전 단계를 cover하는 자기 완결형 산업 구조
- (스웨덴) 밸류체인 단계별 아웃 소싱 통해 완성품 제조하는 open innovation형 산업 구조
-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에 따라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 진입 통한 협력범주 확대 가능성 다대

 **한-스웨덴, 60년의 역사적 관계 대비 경제협력은 미흡**

- 스웨덴 1950년 한국전에 의료지원단(169명)과견 야전병원 지원
- 1959년 3월 11일 우리나라와 공사급 외교관계 수립
- 양국 간 교역규모는 U\$ 29억, 실질 교역규모는 U\$ 34억
  - 2018년 한국의 대(對)스웨덴 직수출은 U\$ 10.4억이나, 제3국 통한 우회 수출 규모가 U\$ 15억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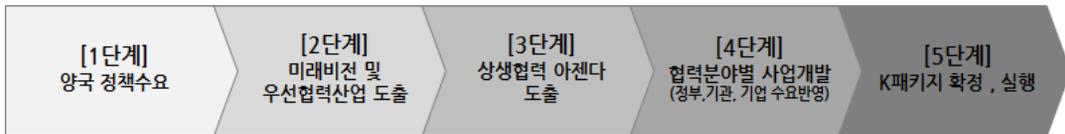
- 2018년부터 한류 접화에 편승 K-beauty 및 K-food 수출증가율 100% 상회
- 한국 대표 수출상품의 현지 시장점유율 증가 지속
  - \* TV(80%), 휴대폰(27%), 타이어(10%), 자동차(8%)
  - \*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에 따라 양국 기업 간 협력관계 확대 전망
- 양국 경제협력 프로젝트 동향
  - LG 화학-Volvo 승용차 간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을 위시하여, 핀테크, K-Food, 에너지, 제약, 건설,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프로젝트 다수 진행

#### 경제협력 프로젝트

- 5G 기술개발(Ericsson과 KT)
- Primo 5G 프로젝트(5G를 이용한 효율적 재난 대응연구 프로젝트로 유럽 6개 기관, 한국 6개 기관 협력 연구 프로젝트) 진행
- 전기자동차 배터리(LG화학과 Volvo 승용차)
- 2차 전지(Northvolt와 싸이아이스)
- 지하철 스크린도어(스톡홀름 로컬트래픽과 S사 협력 타진 중)
- \* 한-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가의 경험은 더욱 확대 가속 기대

### 나. 한-스웨덴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Win-Win협력 프로젝트 개발 필요



\* 스웨덴의 니즈와(수요측면) 한국의 강점을 연결하여 상호 비전달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

#### 양국은 혁신지수 세계 상위국 : 한국(1위), 스웨덴(3위)

- 스웨덴은 클러스터(33개)와 BI(43개)를 중심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유레카를 활용한 글로벌 차원의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 추진 활발
  - \* (한국) 2018년 유레카 파트너국 승격, 지난 10년간 국내산학연 271개와 유럽 791개 간 공동연구 수행

#### 4차 산업 협력 동향

- 현재 스웨덴과 한국은 EUREKA 과제 중 하나인 Primo 5G 프로젝트 공동연구 진행
  - \* 유럽 6개 기관, 한국 6개 기관 참여
  - \* 스웨덴(왕립 공대, Ericsson 사), 핀란드(Alto 대학, Cumu Core 사) 영국(Kings College), 독일(National Instrument 사), 한국(연세대, KAIST, 광주 과기원, 중앙대, KT, EU Cast 사)

-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 이상적인 협력 파트너
  - 스웨덴의 산업 구조는 협소한 내수시장 극복을 위해 사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겨냥
  - 가치사슬 단계별 스마트한 아웃 소싱을 활용, 완성품 제조하는 open-innovation형 산업 구조
  - 가치사슬 쏠단계를 cover하는 한국의 산업 구조상 대기업 간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 중소·중견 기업의 현지 글로벌 기업 밸류체인 진입 통한 협력범주 확대 가능성 다대

### 스웨덴의 협력수요 산업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자동차/자동차 부품/기계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주요 핵심 부품 등</li> </ul>
콘텐츠/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 분야 협업 강화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li> <li>● 한류확산에 따른 k-beauty 및 k-food 관심 고조</li> </ul>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5G, 핀테크, AI, 로봇</li> </ul>
Life Sc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health,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등</li> </ul>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은 1인당 인구수 대비 세계 2위의 유니콘 기업 배출국가</li> <li>● e-health, 핀테크 분야 강세, 한국은 ICT와 유통 분야 강세</li> </ul>

### 우리나라도 EU 회원국이자 북유럽, 발틱 시장 진출 핵심교두보인 스웨덴과 경제협력 개발 노력

- ‘스웨덴의 협력수요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 간 협업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G2G, B2G, B2B 협력 전략은 부재

### 스웨덴 수요대비 우리나라의 역량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자동차/자동차 부품/기계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 LG 화학, SK 등 세계 최고의 2차 전지 생산국</li> <li>- 기술, 인력 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 보유</li> <li>● 자동차 부품 및 기계장비의 경우도 글로벌 경쟁력 보유</li> </ul>
콘텐츠/소비재 (화장품,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Pop, 게임, 드라마 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 보유</li> <li>● 가성비 높은 K-product 상품 준비</li> <li>● K-food의 경우 스웨덴에서 well-being 식품 인지도 제고</li> </ul>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국가</li> <li>●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세계 수준의 경쟁력 보유</li> <li>● e-health 및 핀테크 분야는 스웨덴이 강세, 상호 협력 필요</li> </ul>
Life Sc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줄기세포, 암, 신경치료제 등에서 스웨덴의 기술력 우수</li> <li>● 차세대 신약개발을 위한 양국 협력 필요</li> <li>● 최근 관련 국내기업의 스웨덴 기업 M&amp;A 관심 증대</li> </ul>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은 미국에 이어 1인당 인구수 대비 세계 2위의 유니콘 기업 배출 메카</li> <li>● 한국의 강세 분야인 게임 및 e-commerce 분야에 대한 한국 스타트업과의 교류 협력 수요 다대</li> </ul>

## 한-스웨덴 미래비전 및 실현 전략으로서의 K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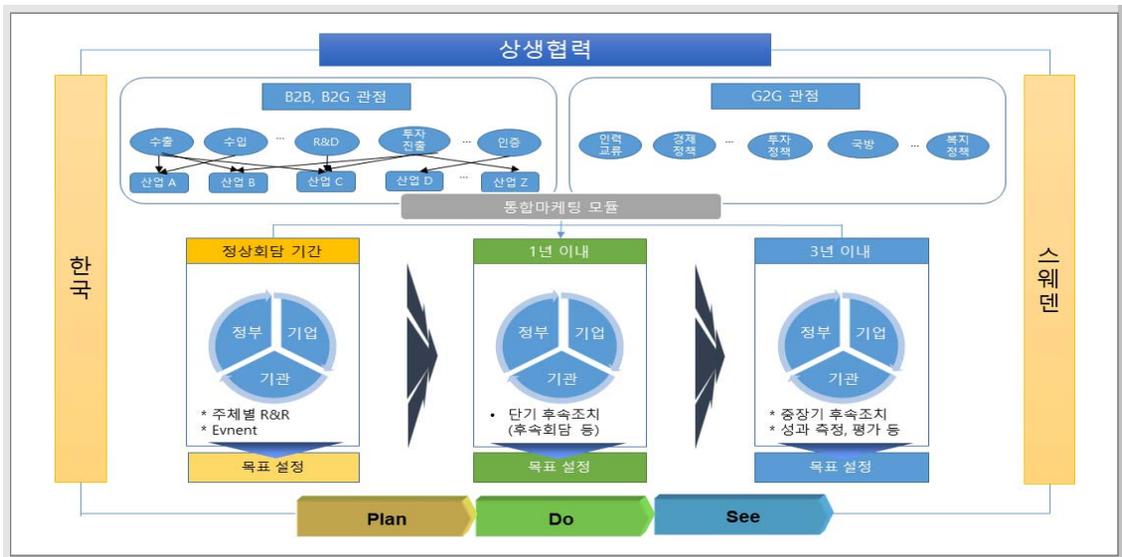
경제협력대상국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최대 성장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다변화를 추구하는 스웨덴과 한국 간 경제협력을 통한 미래 공동 지향점 설정

\*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외교, 안보, 정치 및 문화 등 분야는 추가적으로 반영 필요



부록

## 한-스웨덴 비전달성을 위해 양국정상회담을 모멘텀으로 한 단기-중장기 계획수립 및 실행필요



##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 가. [G2G] 산업·정책 한류로 친기업 제도/문화 구축

**문화한류와 경제 한류를 넘어 산업 및 정책 한류로**

#### ① 한-EU FTA를 기반으로 통상협력 확대

- (정책 수요) 최근 양국 통상 분야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의제 지속 논의
- (기업 수요) 양국기업의 우선협력 분야는 교역확대 및 4차 산업 분야 공동연구
  - ICT(5G, AI, 로봇) 환경(미세먼지저감 공동연구), 에너지(이차전지, 전기배터리), 스타트업 등
  - 우리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관세 진입장벽(인증, 등)

**양국 협력기회 축소 내지 박탈 사례**

(예시1) 한국기업의 스웨덴 공공 입찰참가 한계<sup>1)</sup>

(예시2) 한국기업의 대(對)스웨덴 투자 부진은 체류비자 취득 및 법인 공용계좌 개설 관련 까다로운 현지 법규에 기인

- (협력 방안)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관련 부처의 지속적인 협의 필요
  - 양국 간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공공입찰 영어 공고
  - 현지 법인 설립 한국기업에 대한 체류비자 취득 절차 간소화 및 스웨덴 또는 EU 시민권자가 대표자인 경우 허용하는 법인 공용계좌 개설 조항 완화
    - \* 한-EU FTA 체결에 따른 내국민 대우 조항 중, **스웨덴은 예외 국가로 명문화**
    - \* 스웨덴 투자희망 기업 대다수가 상기조항으로 인해 독일, 네덜란드로 투자지 전환

#### ② 상호 인증 협력기반 구축

- (정책 수요) 스웨덴 정부,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공공조달 형태의 타국과의 협력수요
  - 의약품, 의료기기의 경우 스웨덴 의약품청의 인허가 필수
    - G2G 레벨의 인증 분야 기술협력, 상호인증, 인허가 취득지원 기반조성 필요
- (한국 역량) KOTRA-브라질 인증기관 INMETRO-KTR 공동으로 양국 인증 분야 협력 기반 구축 및 운영 사례 경험 및 노하우 보유

1) 스웨덴은 일정규모 이상의 큰 입찰 건은 영어공고 및 영어로 응찰이 가능하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수시 진행하는 입찰 건은 스웨덴어로만 공고하며, 모든 서류가 스웨덴어로 되어 있어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입수 및 입찰참여에 한계가 있음

### 한-브라질 인증 분야 G2G레벨 협력 사례

- ◆ 양국 산업부 간 한-메르코수르 TA 관련 전자가스자동차 등 품목의 기술규제/인증에 대한 협상 진행 중
  - \* 브라질 인증기관(INMETRO)의 경우, SUB 그룹으로 참여 중
  - KOTRA-협력 MOU 체결(2015년, 2017년)
  - 양 기관 대표, 직접 만나 구체적인 실행방안 모색, 추진(2018년)
  - 양국 인증 협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인적 교류 확대 추진(2~3주간)

- (협력 방안) 우리나라 산업부와 스웨덴 규제당국인 스웨덴 사회부 레벨에서의 협력 MOU 체결
  - 이후 KOTRA, KTR 및 스웨덴 의약품청과 협력 기반 마련 → 양국 기업 인증 관련 제반 사항 지원(한-브라질 사례 벤치마킹)
  - \* 전문가 인적교류, 인증에로서항 등 정보고유, 인증안내자료 제작, 인증취득 지원

## 나. [B2B] 양국 기업 간 산업 협력

- 스웨덴은 제조업 강국, GDP의 20% 점유
  - Ericson, Volvo 등 글로벌 기업 30여 개사 보유
  -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open innovation 가속화
    - \* 기존의 유럽 일변도에서 아시아로 전환 또는 다변화 대응
  -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부품 공급 통한 가치사슬 진입 기회 다대

### 1] 제조업(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장비)협력

- (시장 현황) 자동차 산업은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일자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
  -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부품, 기계장비도 제조업 발전 동력으로 연관 산업 및 시장 지속 증가
- (현지 역량) 인구 1천만의 협소한 내수시장 불구, Volvo, NEVS, Scania 등 3개의 완성차업체 보유
  - 2017년 자동차 총 생산규모는 총 919,120대(전년 대비 12.4% 증가)
- (협력 체계) 투자진출기반 양국 주력 기업 중심 협업 기반 조성

### 제조업 분야 구체적인 협력 사례

가장 중요한 것은 G2G 레벨의 통상협력 제도적 기반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

#### ◆ 자동차

- 1) 전기 배터리
  - (협력내용) 자율주행차량 및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개발 협력 등의 내용으로 기술 제휴협약 체결, 양국 기업 간의 전기차 핵심 부품개발 및 성능향상(에너지 배터리 등), 한국 전기 자동차 부품 회사의 부품 현지 조달 및 공급망 확충, 한국 LG화학과 Volvo 공급계약 체결
- 2) 2차 전지
  - (협력내용) 리튬이온 2차 전지 공동 기술 개발, (한)S사와 Northvolt 사 협력
- 3) 자동차 부품
  - (협력내용) 원가절감, 라인업 확충을 통한 생산증대를 목표로 자동차 부품 조달

## 2 콘텐츠와 소비재 유통

- (정책 수요) 한국 문체부-스웨덴 문화부 간 문화 창조 산업 상호 교류와 협력방안 합의-스타트업 지원 활성화, 문화 창조 산업포럼 공동개최 등
- (시장 수요) 스웨덴 게임\* 및 전자상거래 시장\*\* 지속 성장
  - \* 2015년(U\$ 7.7억), 2016년(14.6억), 2017년(17.2억)
  - \*\* 2015년(U\$ 501억), 2016년(579억), 2017년(670억), 2018년(770억)
- (한국 역량) K-pop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음식, 화장품 등 소비재 전반의 경쟁력 확대로 확산
  - \* 한국에 대한 관심 증대 → 스톡홀름 대학교 한국어 강좌 인기
  - \* 화장품 : 스웨덴 우수 유통채널에 입점, 스킨케어 → 메이크업으로 상품군 확대
  - \* 한국식품 : 건강식 이미지 제고, 한국산 면류와 해조류, 소스류 수요 확대
  - \*\* 수출증가율 : 화장품(↑ 129.6%), 해조류(↑ 179.1%), 기타 농산가공품(↑ 60.3%)
- (협력 전략) 공급자 중심의 한류에서 수요자 중심의 한류 콘텐츠화 및 『한류=문화』 인식 포지셔닝 위한 상호노력 필요
  - \* 스웨덴 게임 시장 대상 한-스웨덴 양국 산업체 간 협력(게임 공동개발, 상호 시장 판로 개척 등) 제고

### 주요 협력 사례 및 시사점

- ◆ (사례1) 2018년 스톡홀름무역관 스웨덴 내 유력 화장품 디스트리뷰터와 협업, K-Beauty 팝업 행사 개최 →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K-Beauty 제품 홍보
- ◆ (사례2) 스웨덴 우수 유통채널인 H&M, Åhlens백화점, Apotek Hjärta(약국 체인)에 한국화장품 입점-Too Cool for School, It's Skin, Missha 등
- ◆ (사례3) 현지 식품 수입업체 Hungfat에 대상, 팔도, 삼양, 영신식품 등 공급 시작

- 현지 온라인 플랫폼운영기업과의 협업 통한 한국 상품 진출 지원
  - \* (B2G) KOTRA-Amazon 간 협력 MOU 체결
- 현지 유력 전문 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 확대 개최 등
- 현지 유통채널과의 Global Partnering 사업 개발 추진

## 3 ICT 협력

- (정책 수요) 5G, AI, 로봇 연구 활발
  - Ericsson사는 5G 분야 글로벌 선도주자, 2020년 5G 상용화를 위해 연구 박차(5G 기술개발 이외 Primo 5G 프로젝트 진행)
  - AI 부문 연구개발을 위해 국립AI연구소 개소(2019년 2월)

- 핀테크 산업 활발

2018년 EU의 PSD 2(Payment Service Directive II) 발효와 브렉시트 우려로 유럽 국가 간 핀테크 거래규모 및 스웨덴의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투자 급증세 →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 활발

o (기대 수요) 5G 기술협력, 광대역통신망 관련 품목 수출 활성화

- (한국) 5G 세계최초 상용화 국가, 스웨덴의 5G 상용화 관련한 기술협력 및 품목 수출 가능성 다대

- (스웨덴) 핀테크 강국, 양국 간 장점 접목 통한 시너지 효과 다대

o (한국 역량) 통신장비 제조업에 경쟁우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통신강국으로서 관련 서비스 및 활용 측면에서 역량 보유

o (협력 방안) KT는 초고신뢰 저지연 통신기술, 5G 커버리지 개선을 위한 특화 솔루션 등 5G 진화기술 상용화 부문에서 에릭슨과 협력 합의. 삼성전자는 현지 카드사, 은행과 협력하여 북유럽 진출 예정

주요 협력 사례 및 시사점

- ◆ (사례1) KT와 Ericson 5G 관련 공동기술 개발
- ◆ (사례2) 삼성전자 현지 카드사 및 은행과 제휴, 삼성페이 진출 추진
- ◆ (사례3) 유레카를 활용 한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 간의 5G 프리모 공동연구

o 양국 간 공동연구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차세대 먹거리 창출 및 스웨덴 통한 EU 및 노르딕, 발틱 국가 진출 필요

4 LIFE SCIENCE 분야(보건의료)

o (의약 제품) 스웨덴은 초고령 사회로 의약품 수요 지속 증가

- 2018년 의약품 시장은 53억 달러(전년 대비 9.28% 증가)

- 스웨덴은 GDP의 12%를 건강의료서비스에 지출,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액은 U\$ 5,510. 미국,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독일에 이어 세계 6위
- 국민 1인당 연간 의약품 구입비는 U\$ 9,807
-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등 만성질환은 원격진료를 통한 장기관리 필요 → IoT 기술력을 접목한 e-Healthcare 분야 성장 중

- 스웨덴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경치료제, 암 치료제 등 다양한 기술 보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내재

- 전자상거래 기반 의료용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분야로도 확대 가능
- (의료 기기) 2015년 기준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U\$ 125억
  - 관련 기업 640개사, 총 고용인원 23,000명
  - \* 스웨덴의 의료장비 수출은 U\$ 23억, 수입액은 U\$ 23.2억, 대(對)한국 수입은 U\$ 584만, 방사선기기, 기타 의료용전자기기, 초음파영상진단기 등이 주류
  - 의료기기는 IoT와 연계 통해 e-health 시장으로 확대 전망

**주요 협력 사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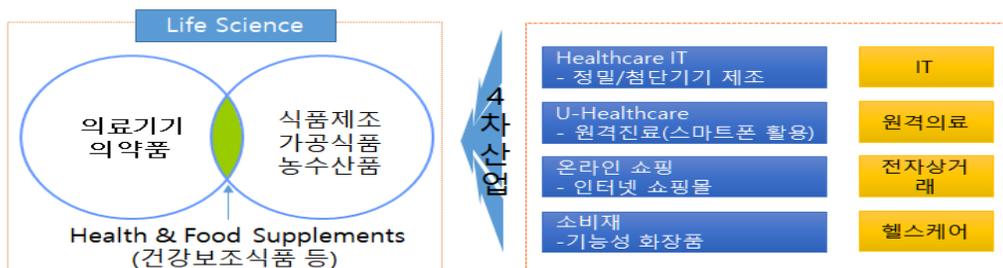
- ◆ (사례1) (스웨덴) 아스트라제네카, 한국기업과의 협업 플랫폼 구축위해 2020년부터 5년간 한국에 7,400억 원 투자
- ◆ (사례2) (한국) 파마리서치프로덕트와(스웨덴) 스타트업 프로모와 신약 연구개발



- 한국과 스웨덴의 우수 기술 보유 바이오 기업 간 전략적 제휴 활성화
- 양국 관련 유관단체 간의 상호협력 채널 형성 및 가동
- 스웨덴 개최 전문 전시회 참가 확대

- (협력 방안) 공공조달참여지원, 인허가 취득지원, 비즈니스 기회 확대
  - (G2G) 스웨덴은 대부분의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공공조달을 통해 공급 → 인증 분야 상호협력 등 국가 차원의 협력기반 조성
  - (B2G)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취득 지원 : 스웨덴 의약품 시장 진출 시 스웨덴 의약품청 인허가 필수
  - \* (한국의료기기공업협회-The Medical Products Agency) 의료기기 인증 협력 MOU 활용한 정례 사업화 필요
  - (B2B) 단일 품목, 단독 진출보다는 4차 산업 분야에서 시너지나 융복합이 가능한 기업 간 콜라보 형태의 비즈니스 기회 발굴 노력

**LIFE SCIENCE 보건의료 분야와 4차 산업 융복합 체계**



## 5 한-스웨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정책 수요) (한국) 2019년 스타트업 및 벤처, 창업 정책을 16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 (스웨덴) 2015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 기업 및 혁신 창업 기업 육성전략 추진
  - \* ‘창업(Start-up)-성장(Scale-up)-회수(Exit Strategy)-재도전(Re-bound)’의 전 과정 지원, 창업펀드, 세제 지원, 소액 펀딩 및 기술금융 확대, 일괄 담보제 도입, 기술금융,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풀패키지 지원
- (기업 수요) 유럽 내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지속적 증가 추세, 선도적 혁신국가인 한국과 스웨덴에서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스타트업 급성장
- (상호 역량) (한국) 벤처투자금액 기준 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기술력 보유 스타트업 다수 (스웨덴) 핀테크, E-헬스 분야 기회 다대, 핵심역량 분야의 상이로 기술협력에 의한 혁신성장 기대
  - \* 한국은 ICT 서비스, 유통, 콘텐츠 비중이 연간 2~8% 증가 추세
  - \* 반면, 바이오, 의료, 화학·소재는 감소 경향, 특히 2017년 핀테크 분야는 세계 평균도입 비율 33% 이하
  - \*\* 스웨덴은 2018년 EU의 PSD2(Payment Service Directive II) 발효와 브렉시트 우려로 인해 유럽 국가 간 핀테크 거래 금액 및 건수에 대한 스웨덴의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투자 급증세
- (협력방안)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생태계 노출 지원으로 Born-Global 체질 강화 → G2G, B2G, B2B에서 상호협력 및 실질적 사업 창출

### 주요 협력 사례 및 시사점

- ◆ (사례1) 2016~2017년, KOTRA Startup Meet-up 사업 후속 지원으로 (한국) 오피스원, (스웨덴) 달라나스사로 부터 투자유치
- ◆ (사례2) (스웨덴) MeLaud, 한국 삼성넥스트펀드 M&A
- ◆ (사례3) 2018년 스웨덴 유망 스타트업 6개사(Serendipity Challenge 우승자) 방한하여 서울창업허브 방문 등 한국 스타트업과 창업생태계 경험 공유 (스웨덴) MeLaud, 한국 삼성넥스트펀드 M&A

- 양국 스타트업 지원 전문기관 간 협력채널 형성 및 가동
  - 상호 best practice 공유 및 네트워킹 강화
- 스웨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Stockholm Tech Fest’ 참여 통해 파트너 물색
- 현지 글로벌 기업 가치사슬진입 도모

**스웨덴 : 글로벌 스타트업의 허브**

◆ **일반현황** : 2017년 기준 전체 등록기업의 7%가 창업 기업

- 실리콘벨리에 이어 1인당 인구수 대비 유니콘 수 2위, Skype, Spotify, King 등 6개
- 북유럽 투자액 절반이상 흡수(5억 9,500만 유로, 2017년 기준)
- 2015~2018년 상반기간 인구 100만 명 기준 스타트업 M&A 5.52건으로 세계 2위

<b>성장요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에서의 기술 스타트업 창업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과학 발달을 토대로 응용과학 연구 활성화가 창업으로 연계</li> <li>- 직무발명 시 특허권의 대학 귀속이 아닌 발명자 개인의 소유권 인정</li> <li>- 대학교수의 산업체 겸직과 파견 근무 허용</li> </ul> </li> <li>○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 최소화</li> </ul>
<b>위험요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관련 비자 및 창업기업 설립과 관련된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는 없음</li> <li>○ 노동비자 발급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비EU 국가 스타트업의 현지 단독 창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li> </ul>
<b>기회요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인구 1천만 명으로 내수시장이 협소해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공략 목표</li> <li>- 개방형 액세스와 다국적 기업협력문화로 글로벌 지향 체화</li> <li>- Ericsson, Volvo, Atlas Copco, Electrolux, IKEA, H&amp;M 등 대기업이 글로벌 인재 유치 및 혁신적·창의적 아이디어 지원에 적극적</li> <li>- 고속 인터넷 등 높은 기술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나라와 함께 상위 디지털 사회 기록</li> </ul> </li> </ul>

## 다. [B2G] 전기차 차세대 배터리 개발 협력 강화

### ① 협력수요

- **(정책 수요)** 스웨덴 정부, 저탄소 전략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 EU 온실가스 1990년대 대비 2020년까지 50% 감축 목표
  - 스웨덴 정부 저탄소 전략으로 2030년까지 교통 분야 화석연료 퇴출 발표
    - \* 탄소 배출량에 따른 환경세 부과(2018년 7월), 전기차 충전설비 확대 등 추진
- **(기업 수요) 친환경 자동차 및 리튬이온전지 기술개발 확대 추진**
  -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전기차의 가격경쟁력 확보, 성장 가속도 전망
    - \* 전기차는 2025년 연간 1,100만대로 8년 만에 10배 성장, 2030년 3천만 대, 2040년에 6천만 대로 급팽창하여 전체 자동차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뉴에너지파이낸스(BNEF), 2018)
  - 스웨덴 기업 노스볼트(North Volt)는 2017년 9월 스위스 전기 자동차 시설 생산업체 ABB와 리튬이온배터리 제조공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 교환, 스카니아 및 덴마크 풍력터빈 제조사 베스타와 파트너십 체결
    - \* 연구시설(테스트라인)과 공장은 스웨덴에 건설되며, ABB는 노스볼트에 초기 투자 비용 및 산업 자동화 지원

### ☞ (노스볼트) 유럽 최대 규모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공장 건설

- 테슬라 전 부사장 피터 칼손(Peter Carlsson)이 2016년 11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 창업
- 6년간 40억 달러(약 4조6천억 원)의 자금 투자 예정
- 연구개발센터는 수도 외곽 베스테로스(Västerås)시, 생산라인은 재료 조달지인 북부 셀레프테오(Skellefteå)시에 건설
- 2018년 하반기 연구개발센터 건설 시작, 2019년 시연 품 생산라인 완성 후 2020년 1분기부터 정식 제품을 양산할 계획, 최초 연간 생산능력은 8GWh, 2023년 완공 후 생산능력은 32GWh가 될 전망

### ○ (상호 역량) 스웨덴의 자원 수급과 한국의 기술력

- 스웨덴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원료 산지이자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저렴한 전기가격으로 생산 공장 운영에 유럽 최적의 조건
  - \* 생산 공장 지역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활물질 재료인 흑연과 양극활물질 니켈·망간 생산, 국경이 맞닿은 핀란드에서는 양극활물질 제조에 사용되는 코발트, 니켈, 리튬 채굴
- 우리나라는 2차 전지 분야 글로벌 선두주자로 최고 수준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과 제조 인프라 구축

## 2 협력 방안

### ○ 분야의 특수성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진출이 중요(B2G)

- \* 보시는 일본 GS 유야사, 미쓰비시와 합작 투자사 설립

### 주요 협력 사례 및 시사점

#### ◆ (사례) (한국) S사, (스웨덴) 노스볼트와 33억 원(225만 유로) 상당의 2차 전지 극판 설비 계약(2018년 6월)

- 한국 S사, 2018년 입찰경쟁을 통해 중국, 일본 경쟁사를 제치고, 노스볼트의 2차 전지 전극 공정장비 수주 계약 체결에 성공(\*스톡홀름무역관 지원)
- 유럽 최초 기가(Giga) 팩토리인 노스볼트 전지공장에 한국기업이 장비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 노스볼트의 2차 전지 관련 국내기업 협력수요 다대 → 씨아이에스 성과가 여타 국내기업의 현지진출에 촉매역할 기대

###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현지 글로벌업체와의 적극적인 R&D 협력이 중요

- 융합기술 분야의 진보는 전기차 부품의 본질적인 변화와 친환경 차 시장의 기존 구도를 흔들 것으로 전망
- 유럽 기업들이 배터리 연합으로 그동안 가격경쟁력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주도해오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정조준 하는 추세
- 급성장세인 배터리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지 글로벌 업체와 기술 개발 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가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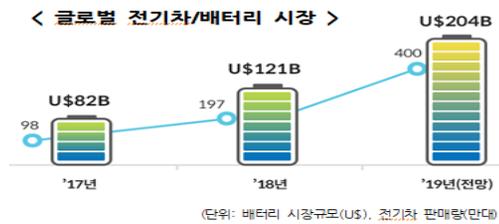
○ KOTRA-현지 유관기관 협력 플랫폼 활용, 신규 프로젝트 수주 확대

- \* KOTRA-스웨덴 무역투자청(Business Sweden), KOTRA-스톡홀름 투자청(Invest Stockholm) 간 MOU 체결 (2019년 6월)
- \* 노스볼트 배터리 사업은 신규 고용창출 3천 명 이상 전망, 현재 배터리 설계 분야에만 한국 엔지니어 20명 이상 진출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KOTRA-현지기관 협력 플랫폼

◆ 양 기관 협력 MOU 체결(2019년 6월) 배경

- (시장) 전기차 배터리 등 관련 분야 시장 확대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실질적 지원 프로세스 지원 필요성 증가
- (현황) 단순 도급형 프로젝트 발굴 중심 수주 지원 한계



(자료 : POSCEO, 2019년 5월 기준)

⇒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대규모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지 밀착형 지원 新기능 도입 필요

◆ 기관 간 업무협력 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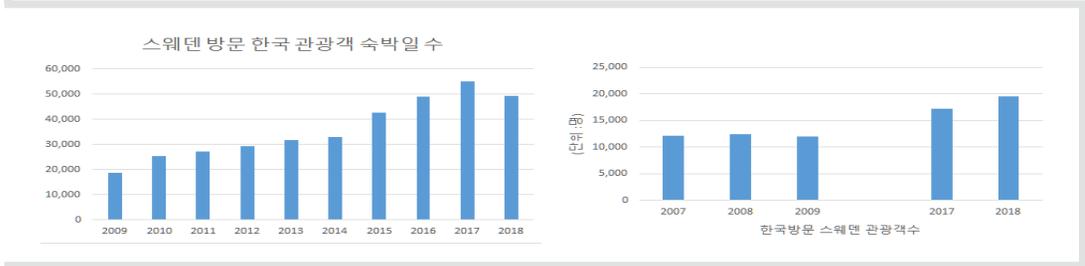
라. [국민] 동반자 관계 형성과 발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양국 간 관광객 교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인적 교류 지속 확대 전망 → 단순 인력 교류를 넘어 경제협력\* 더 나아가 상호문화발전 및 SDG 구현에 활용

① 인적교류 현황

- 스웨덴 방문 한국 관광객 숙박일 수(단위 : 숙박일 수)
  - 스웨덴 방문 한국 관광객 숙박일 수는 2009년 18,723泊에서 2017년 54,927泊으로 193% 증가,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0.5% 감소한 49,172泊

## 지난 10여 년간 양국 인력 교류 현황



자료 :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한국관광공사(2019년 5월 기준)

### ○ 한국방문 스웨덴 관광객(단위 : 명)

- 한국방문 스웨덴 관광객은 12,161명(2007년)에서 19,503명(2018년)으로 60% 증가
- \* 양국 간 인력교류 통계는 기준단위 상이로 절대 비교 불가, 현재 지속 증가세

### ○ 양국 SDG(Substantial Development Goal) Index 분석 결과, 한국은 기아해소와 식량안보(SDG 2)에서 스웨덴보다 우수, 스웨덴은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SDG 5), 물과 위생(SDG 6), 불평등 해소(SDG 10),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SDG17)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수

- 스웨덴이 글로벌 파트너십 부문에서 한국에 비해 절대 우위를 보이는 만큼 향후 양국 간 협력 노력 제고 필요

## ② 상생을 위한 산업인력 교류 확대 시급

### ① 자유로운 인적교류

#### ○ EU 역내국 수준으로 양 국민의 자유로운 교류 필요

- (관광객) 무비자 입국 후 6개월 단위로 90일 체류 가능
- (Workholic) 최대 1년 체류 가능, 취득 소요 기간은 3개월 내외
- (Work-permit) 현지 파견 주재원의 경우, 체류비자 취득 및 갱신에 오랜 시간 허비(취득 : 12~15개월/갱신 : 6개월 이상)

### ② 양국기업은 상호 M&A로 그린벨트 활성화 필요

#### ○ 대(對)한국 진출 스웨덴기업 : Volvo Korea 등 118개사

대(對)스웨덴 진출 한국기업 : 삼성전자 등 12개사(법인, 지사진출)

#### ○ 불균형 지속 및 장애 요인

- 스웨덴 VISA 취득 애로
- 스웨덴 진출 외국법인의 경우, EU 또는 스웨덴 시민권자가 대표가 아닌 경우 법인구좌 개설 불가

③ 양국 기업 간 R&D 체결 이후 VISA 문제로 프로젝트 진행 애로 발생

- (사례) Volvo 승용차, 현대위아 위시 한국 내 Volvo 협력사 다수
  - 아웃소싱 프로젝트로 Volvo 신규 생산라인 설비자로 지정된 한국 업체 기술자들이 프로젝트 (4개년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스웨덴 비자 신청했으나, 비자취득에 장기간 소요 → 프로젝트 진행 차질 발생
  - 한국 업체가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법인설립 결정 → Volvo 측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불발

③ 협력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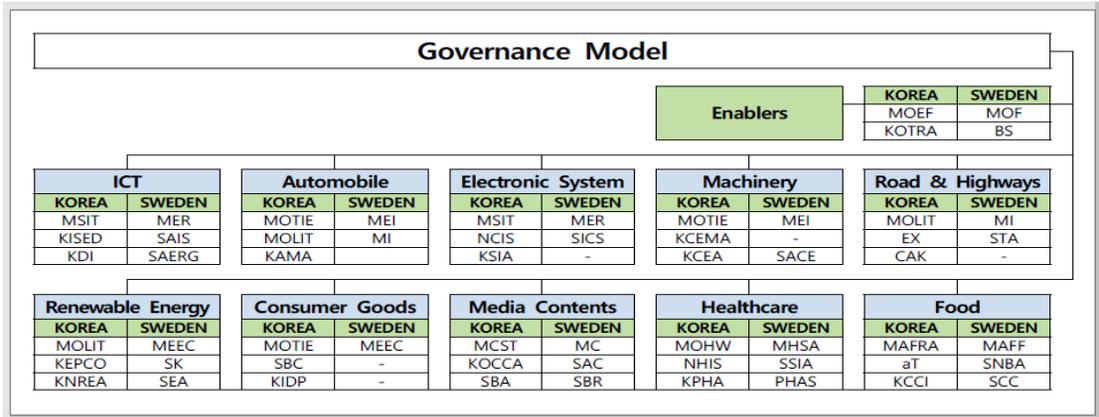
- 양국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 시스템 마련 인식 공유
- 특히, 상호 win-win 차원의 산업인력 교류 및 차세대 인적 자원인 청년층의 교류 확대 시스템 마련이 중요
  - 1년 체류 가능한 임시 비자 활성화 필요
- 비자발급 기간 단축 및 한국인 대표의 현지법인 공용계좌 개설 허용
  - 한국기업의 법인설립 지원 위해 비즈니스 비자(현행 1년) 유효 기간의 2년 연장
- 현지 체류 주재원 편의 위한 한국 운전면허증 연계 스웨덴 운전면허증 발급 지원

### Ⅲ. 향후 對스웨덴 K패키지 실행체계(안)

#### ① 한-스웨덴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한 지속적 이행점검 체계 가동

- 한-스웨덴 경협위의 정례 개최화
- Sub 분과도 만들어, 분야별 트리블 슈팅, 신규과제 발굴, 실행력 제고

\* 양국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두가 되는 거버넌스 스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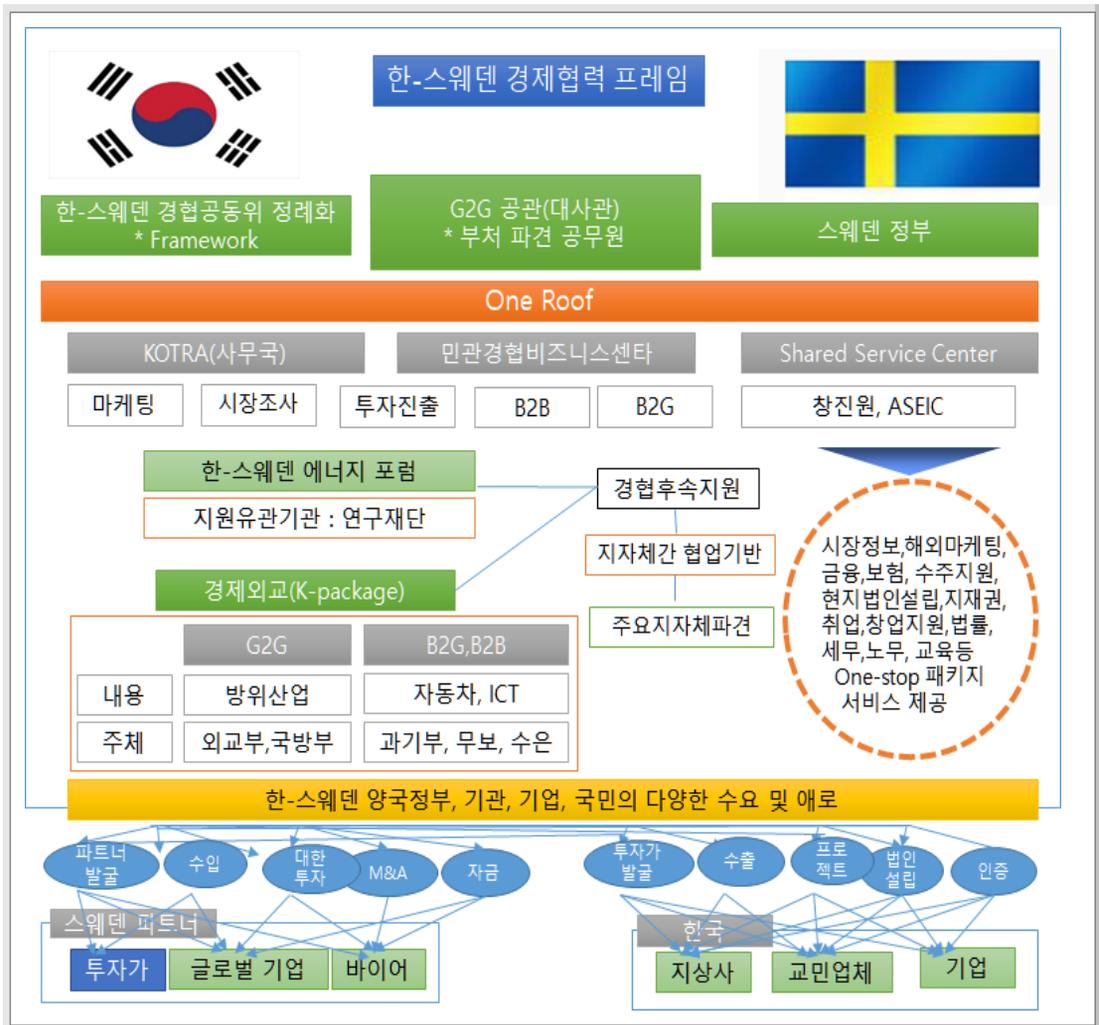
KOREA	SWEDEN
aT	MAFF
CAK	MC
EX	MEEC
KAMA	MEI
KCCI	MER
KCEA	MHSA
KCEMA	MI
KDIII	PHAS
KEPCO	SAC
KIDP	SACE
KISED	SAERG
KNREA	SAIS
KOCCA	SBR
KPHA	SCC
KSIA	SEA
MAFRA	SICS
MCST	SK
MOHW	SNBA
MOLIT	SSIA
MSIT	STA
NCIS	
NHIS	
SBA	
SBC	

② 단기적으로 현지 KOTRA를 KBP(Korea Business Plaza) 化하여 상시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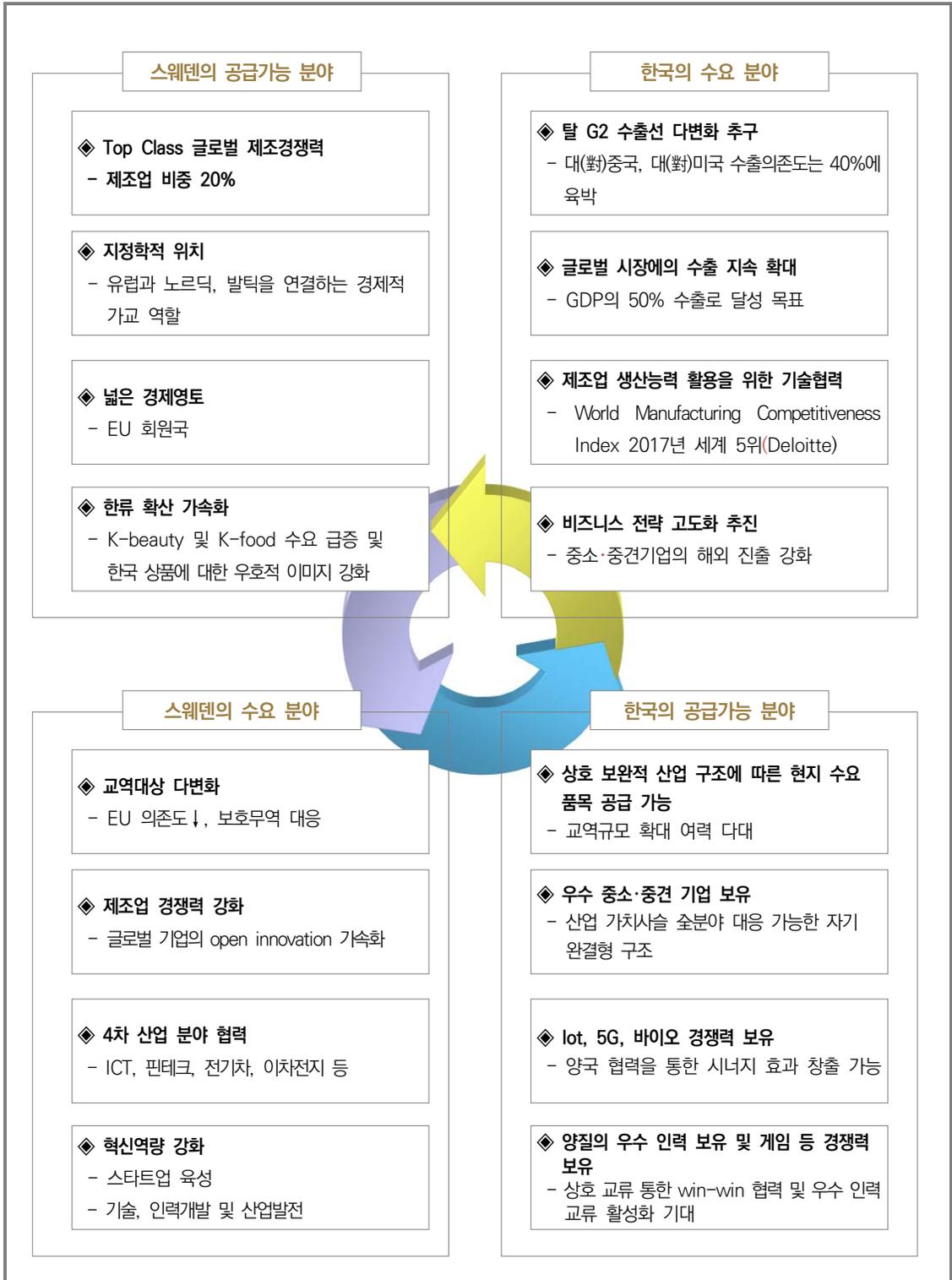
- 중장기적으로 물리적 Shared Service Center 구축  
\* B2B 과제는 해외 KOTRA 무역관을 통해 실시간 이행(G2G 과제, 대사관 전달)

③ (향후과제) 관계부처 수요 반영, 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

- KOTRA 차원 자료로(대(對)정부 제안 성격), 양국 정부/유관기관/대기업의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필요 → 정부 차원 K패키지 마련  
\* 경제부문 중심이 아닌,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숲 분야 참여주체 수요 반영
- 향후 한-스웨덴 경제공동위 및 고위급 회담 시 K패키지 내용을 공동성명 형태 발표  
\* 양국 정부부처 간, 기관 간 K패키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MOU 체결 병행



<한-스웨덴 상생협력 요약>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수정	차장	스톡홀름무역관	+46-8-30 8090	sujeong.lee@kotra.or.kr
2	김수정	과장	스톡홀름무역관	+46-8-30 8090	crystal@kotra.or.kr

KOTRA자료 20-037

## 2020 국별 진출전략 **스웨덴**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0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문의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183-8(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